



Macro Comment

2026년 예산안: 재정부담, 당장 우려할 정도 아니다

▶ Economist 최규호 choi.gh@hanwha.com 3772-7720

성장과 회복을 위한 지출 확대

2026년 총지출은 728.0조 원으로 전년대비 8.1%, 총수입은 674.2조 원으로 3.5%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109.0조 원으로 전년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고, GDP 대비 국가채무(51.6%)도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했다.

분야별 재원 증가율은 R&D(+19.3%)와 산업 및 중소기업(+14.7%) 부문이 가장 높았다. 특히 R&D는 일반행정과 함께 2023~25년 연평균 지출이 감소한 유이한 분야였지만, 금년에는 보건과 일반행정 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다(금액 기준). 반면,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오던 외교(-9.1%) 분야의 재원은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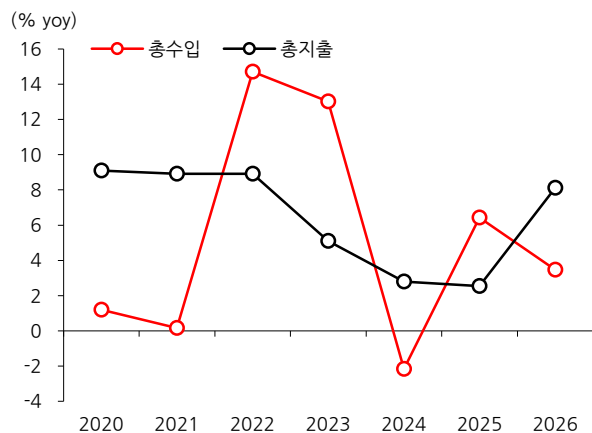
국고채 발행계획도 232조 원, 순증도 115.7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다만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당사 채권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따르면, 예산안이 발표된 만큼 재정 불확실성이 완화될 전망이나 금리 하단이 견고해질 가능성은 높다.

재정부담을 당장 우려할 정도는 아님

정부의 정책 기조는 확실하게 확장재정으로 돌아섰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수지 악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근래 약해진 성장을 감안하면 확장재정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지난 7월 국내 소비도 내수 정책 영향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정책 강화에 따른 성장 효과는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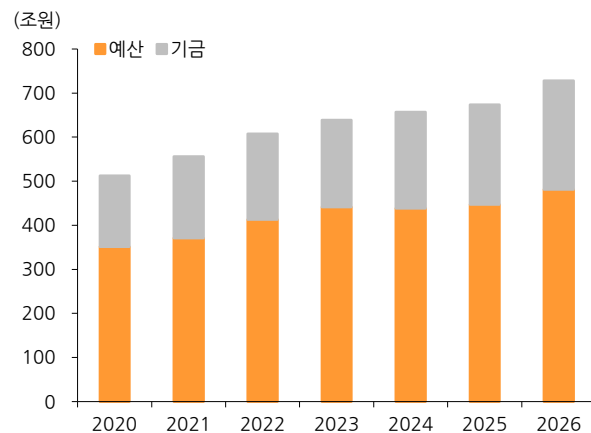
재정부담도 당장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참고하면, 한국의 내년 명목GDP 추정치는 2,725조 원 정도다. 올해와 내년에 3.2%씩 성장해야 가능한 수준이고, 2%의 물가 상승률을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연간 1.2%씩 성장하면 달성할 수 있다. 금년 성장률이 당사의 전망(1.1%)을 하회하더라도 내년에는 1.5% 내외의 성장률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GDP 추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관세와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예상 밖의 충격으로 지출 대비 성장이 따라와주지 않으면 향후 정책 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림1] 2026년 예산안: 수입 대비 지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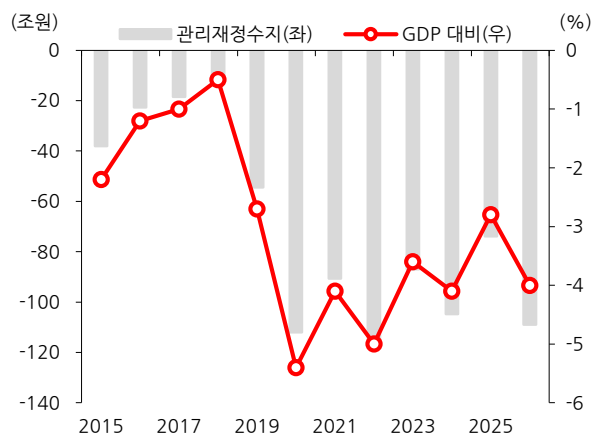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총지출은 처음으로 700조 원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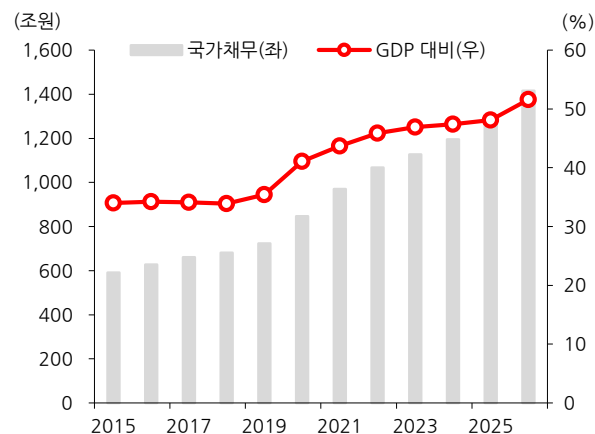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가장 큰 적자 폭은 아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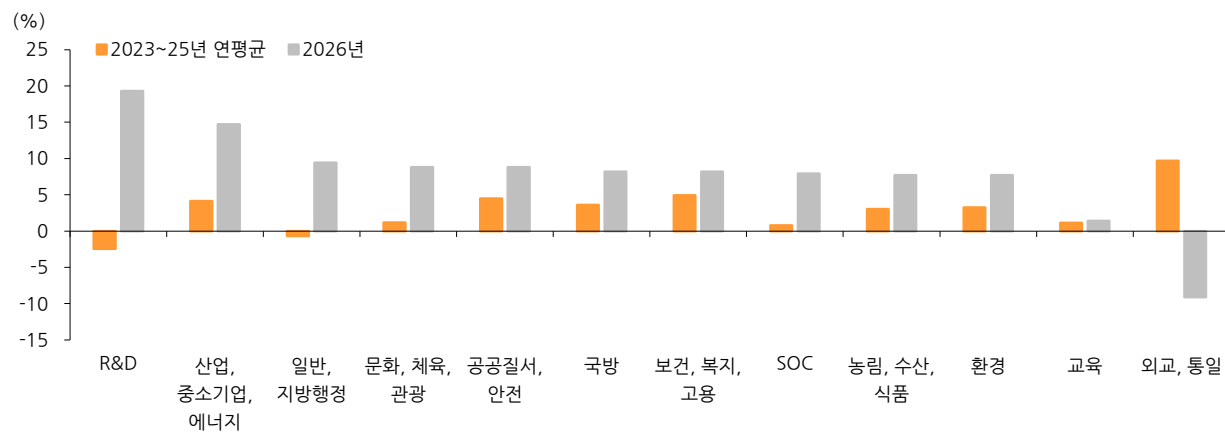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GDP 대비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R&D와 산업, 문화 관련 투자 크게 확대 vs. 외교 투자는 축소



자료: 기획재정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MSCI

The MSCI sourced information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MSCI).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MSCI, this information and any other MSCI intellectual property may not be reproduced, disseminated or used to create any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any indices.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The user assumes the entire risk of any use made of this information. MSCI, its affiliates and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ereby expressly disclaim all warranties of originality, accuracy, completeness,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any of this informatio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MSCI, any of its affiliates or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ave any liability for any damages of any kind. MSCI and the MSCI indexes are services marks of MSCI and its affiliates.

◎ GICS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was developed by and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and Standard & Poor's. GICS is a service mark of MSCI and S&P and has been licensed for use by [Licensee].
